

티베트 大藏經 翻譯의 諸問題

--- 譯註本の 完成 ---

허 일 범

(진각대학교 밀교학과 교수)

목 차

- I. 티베트 佛典의 韓半島 傳來 類型
- II. 티베트 大藏經 한글 翻譯의 接近方法
- III. 티베트 大藏經 翻譯의 諸問題

I. 티베트 佛典의 韓半島 傳來 類型

bSam yas 寺의 寺誌인 『sBa bśad』 傳에는 서기750년경 티베트의 遣唐使인 sBa shaṅ shi 일행이 四川省 成都의 淨衆寺에서 신라의 金和尚(684~762)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신라의 入唐留學僧이던 悟眞은 8세기 말 인도로 구법순례를 떠났다가 귀로에 티베트에 들어갔으나 그 곳에서 입적한 일이 있다.

그 후 고려시대 말에 이르러 몽골(원)을 거쳐서 고려에 들어오는

티베트승들이 있었다. 1271년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티베트승들이 고려를 방문하였고, 1294년 티베트승 折思八이 티베트 경전과 범구류를 가지고 고려에 들어 왔으며, 1314년에는 洪濬이 티베트경전 18000권을 고려에 전해준 일이 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 찬술된 『Maṇi bkaḥ ḥbum』이 티베트승 刺思馱麻와 思八刺 라마에 의해서 고려에 전해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때부터 티베트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티베트의 불교관련 전적류가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고려시대의 일이었다.

먼저 한반도에 전래된 티베트불전 가운데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rÑiṅ ma 傳承의 gTer ma 인 『Maṇi bkaḥ ḥbum』 및 그와 관련된 문헌들이다. 이 문헌은 Sroṅ btsan sgam po 왕(581~649재위) 당시부터 편찬된 것으로 교설중에는 “매장되었던 대자대비하신 寶莊嚴의 위대한 말씀을 sLob dpon grub thob dNos grub 이 찾아냈다”라는 기술이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이 티베트에 유통된 것은 dNos grub 이 활동하던 시기인 8세기 초이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말 몽골(원)을 통해서 전해졌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훗날 그 문헌의 일부가 발췌되어 여러 종류의 찬술집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현존하고 있는 『Maṇi bkaḥ ḥbum』 계통의 찬술집인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六字大明王陀羅尼經』, 『六字大明王經持誦法』, 『六字靈感大明王經』 등은 조선초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성립된 것들이다.

이와 같이 티베트로부터 몽골을 거쳐서 한반도에 전해진 『Maṇi bkaḥ ḥbum』은 훗날 우리나라 특유의 찬술집으로 까지 전개되었다. 그 외에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3세기말 折思八과 14세기초 洪濬이 전래했다고 전해지는 티베트의 범구류와 불교경전이 있다. 그 중에서도 洪濬이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티베트 경전류는 매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것이 티베트 대장경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단정 지을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으로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1967년 달라이라마 14세가 동국대학교에 기증한 Lha sa 판 티베트대장경의 판본이 있다.

이 판본은 달라이라마13세(Thu bstan rgya mtsho, 1876~1934)의 발원에 의해서 Nor bu glin kha 궁전내에 刻經處를 설치하고, 스스로 감독하면서 판각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bKaḥ ḥgyur을 판각하기 위해서 sNar than 판과 sDe rge 판을 저본으로 달라이라마학문연구소의 bDe dbyans mtshan shabs과 몽골의 학승 Chos grags 이 원고 작성하였다. 그리고 항상 달라이라마의 검열을 받은 후, 印刻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재차 달라이라마의 검열을 받고, 문자검열판에게 넘겨져 다시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932년 bKaḥ ḥgyur의 판각이 완성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동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Lha sa 판 티베트대장경은 bKaḥ ḥgyur 만이 존재하는 미완성의 대장경이기는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I. 티베트 大藏經 한글 翻譯의 接近方法

티베트 대장경의 중요성은 이미 불교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불교가 전파된 그 어느 지역에서 편찬된 대장경보다 방대하다는 것과 내용상으로 오류를 줄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티베트 대장경 자체에는 많은 종류의 異板이 있으며, 그들 판들간에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판본간 대조작업을 하는 것은 번역작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판본들의 계통을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판본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번역인력의 양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단순히 티베트어만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아

나라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계율, 화엄, 반야, 밀교등의 각 분야의 교리나 수행법등에 정통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서 그런 인력들이 확보되면 다양한 판본을 계보에 따라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연구 작업, 판본의 저본 설정과 그에 따른 교정 작업, 그리고 내용의 번역에 들어 가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티베트대장경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판본의 수집과 전문적인 번역인력의 양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板本の 收集과 分類作業의 必要性

티베트 불교사에서 Sroṅ btsan sgam po (581~649재위) 왕은 티베트의 전토를 통일하고 나서 각 지역에 사찰을 건립하고, 많은 경전들을 입수하여 번역작업도 지원했다. 그 후, 후대의 왕들을 거치면서 번역된 경전의 양이 많아지자 경전의 분류와 정리, 그리고 교정과 재번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9세기 초에는 lDan dkar 목록이 완성되었고, 그 목록을 근간으로 경전번역의 중복을 피하면서 이미 번역된 경전의 교정과 새로운 번역들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텐칼목록의 편찬은 훗날 티베트 대장경편찬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다.

텐칼목록의 목차에 의하면 “대승의 경류 한역으로부터 번역한 것 (Theg pa chen poḥi mdo sde rgya las bsgyur ba la)”, “經類의 釋疏 한역에서 번역한 것(mdo sdeḥi ṭikā rgya las bsgyur ba la)”, “미교정의 전적(gsuṅ rab shu chen ma bgyis pa la)”, “번역중인 론 (bstan bcos sgyur ḥphro la)”등의 내용이 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와 한역에서 번역된 경전이 있으며, 그 경전들은 철저한 교정에 의해서 번역되었고, 목록의 작성 중에도 번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티베트에서는 경전의 번역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장경 전체의 편찬으로까지 이어지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정작 명실상부한 티베트대장경이 본격적으로 판각되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초 이후의 일이다.

여기서 판각된 티베트 대장경의 계보를 살펴보면 크게 sNar than 고판과 Tshal pa 판계통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sNar than 고판은 1312년에 판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永樂판(1410), 萬曆판(1605), 康熙판(1684), 乾隆판(1737)이 이 계통에 속한다. 그리고 Tshal pa 판은 sNar than 고판보다는 늦고, 永樂판보다는 빠른 시기에 판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i than 판(1690년대), sNar than 신판(1730), sDe rge 판(1733), Tso ne (1733), Kha la kha 판(1910), Lha sa 판(1932)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판본 중에서 bKaḥ ḥgyur과 bsTan ḥgyur 이 동시에 전해지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sNar than 판, 北京판, Tso ne 판, sDe rge 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판본의 대조·교정 작업은 bKaḥ ḥgyur과 bsTan ḥgyur 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으며, 내용상으로 sNar than 고판과 Tshal pa 판으로 구분되는 두 부류의 판본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같은 계열의 판본간 교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다른 계열간 판본의 교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정 작업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정 작업이라도 해야한다면 두 부류 중에서 sNar than 계통의 판본이나 Tshal pa 계통의 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교정 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sDe rge 판이나 北京版을 저본으로 한 교정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들 판본간에 상당부분의 상이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 작업을 거친 후에 번역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판본간 대조·교정 작업과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다음으

로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석서가 있는 경전의 경우, 경구의 인용과 주석의 내용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전의 주석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구를 인용해야하기 때문에 그 인용된 경구를 통해서 본경의 경문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주석서의 내용을 사전적 용어해설로 간주하여 경문번역 내용의 의미 전달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산스크리트본을 비롯한 여타의 異本이 있다면 그것들을 참조하면서 번역하고, 주석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底本の 設定과 板本間 校訂作業

저본의 설정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대개 앞에서 언급했듯이 sNar than 고판 계통과 Tshal pa 판 계통중에서 선택하고, 어느 한 판본을 저본으로 정하면 다른 계통의 판본을 대조본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여기서 北京板을 저본으로 삼았다면 sDe rge 판을 대조본, sDe rge 판을 저본으로 삼았다면 北京板을 대조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여기서는 티베트본과 한역본이 존재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는 北京板을 저본으로 삼고 sDe rge 판과 HT.필사본을 대조본으로 한 것이다.

sems kyi khyad par rim par phye ba¹⁾ bcom ldan ḥdas²⁾ ṅag gi dbaṅ phyug la phyag ḥtshal lo// ḥdi skad dag gyis thos pa dus gcig na/ bcom ldan ḥdas de bshin gśegs pa thams cad³⁾ byin gyis rlob pa/ rdo rje

1) BKAḤ ḤGYUR Rgyud Tha 115b3

2) graṅs/ bcom ldan ḥdas; D.G., H.T. graṅs/ bam po daṅ po bcom ldan ḥdas

3) pa thams cad; HT. pa

chen po rgya che ba/ chos kyi dbyiṅs kyi pho bran rdo rje ḥdsin thams
 cad ḥdu ba/ de bshin gśegs paḥi⁴⁾ mos pas rnam par rol ba⁵⁾ mthaḥ daṅ
 dbus med ciṅ rtse mo mtho ba/ rin po cheḥi rgyal pos śin tu legs par
 rgyan pa ḥbyuṅ baḥi khaṅ bzaṅs⁶⁾ chen po rin po cheḥi rgyal poḥi naṅ
 na/ byaṅ chub sems dpaḥi lus kyi seṅ geḥi khri la bdugs te/

----- 中略 -----

gsaṅ ba⁷⁾ paḥi bdag po phyag na rdo rje daṅ/ de dag la sogs te saṅs
 rgyas kyi shiṅ bcuḥi rdul phra rab kyi rdul sñed kyi rdo rje ḥdsin rnam
 daṅ thabs gcig tu⁸⁾ bshugs so⁹⁾/ byaṅ chub sems dpaḥ chen po¹⁰⁾ kun tu
 bzaṅ po daṅ/ byams pa daṅ/ ḥjam dpal daṅ/ sgribs thams cad rnam par
 sel ba la sogs pa dag gis kyaṅ bskor ciṅ mdun gyis bltas pa la/ ḥdii lta
 ste de bshin gśegs paḥi ṅi ma dus gsum las ḥdas par byin gyis brlabs
 nas sku daṅ gsuṅ daṅ/ thugs mñam pa ṅid gshi shes bya baḥi chos kyi
 sgoḥi chos ston do/ de na byaṅ chub sems dpaḥ kun tu bzaṅ po la sogs
 pa¹¹⁾ de dag daṅ/ gsaṅ ba paḥi bdag po la sogs pa rde rje ḥdsin de
 dcom ldan ḥdas rnam par snaṅ mdsad kyi¹²⁾ byin gyis brlabs kyis sku
 mñam pa ṅid bkod pa mi zad paḥi¹³⁾ mdsod rnam par bsgyaṅs pa la
 shugs so¹⁴⁾/ de bshin sku daṅ¹⁵⁾ gsuṅ daṅ/ thugs mñam pa ṅid bkod pa

4) paḥi; DG. paḥi, HT. pa

5) ba; DG., HT. pa

6) bzaṅs; DG. bzaṅs, HT. bzaṅ

7) BKAḤ ḤGYUR Rgyud Tha 116a1→

8) gcig tu; DG. cig, HT. gcig tu

9) so; DG. so, HT. te

10) byaṅ chub sems dpaḥ chen po; HT. byaṅ chub sems dpaḥ sems dpaḥ chen
 po

11) la sogs pa; DG. las cogs, HT. la sogs pa

12) kyi; GT. kyis

13) mi zad paḥi; GT. mi bzaṅ paḥi

mi zad paḥi mdsod rnam par bsgyiṅ pa la shugs¹⁶⁾ te/

여기서 우리들은 티베트 대장경의 판본간 대조를 통해서 그것이 내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판본간의 대조는 이와 같이 저본과의 상이점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만약 저본에 결정적 오류가 있어 번역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석 (2)의 “graṅ/ bcom ldan ḥdas; D.G., H.T. graṅ/ bam po daṅ po bcom ldan ḥdas” 는 내용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문의 품별순서를 밝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 저본인 북경판의 “graṅ/ bcom ldan ḥdas”라는 내용을 번역할 지라도 주를 통해서 “graṅ/ bam po daṅ po bcom ldan ḥdas”의 내용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주석 (11)의 “la sogs pa; DG. las cogs, HT. la sogs pa ”의 경우, 저본과 HT.본은 일치하는데 DG.본만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내용상으로 “la sogs pa”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las cogs”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나아가서 주석(13)의 “mi zad paḥi; GT. mi bzaṅ paḥi”와 같이 용어 사용의 오류로 번역이 불가능한 표현이나 내용상 상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즉 “mi zad pa”이란 경구를 “mi bzaṅ pa”로 번역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번역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14) shugs so; HT. shugso

15) sku daṅ; HT. du

16) shug; GT. shugs

여기서 우리들은 판본간의 대조를 통해서 저본과 대조본간의 상이를 밝혀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를 알 수 있다.

3. 底本과 異譯本의 對照 및 內容檢討

sems kyi khyad par rim par phye ba¹⁷⁾ /bcom ldan ḥdas ṅag gi dbaṅ phyug la phyag ḥtshal lo/ ḥdi skad dag gyis thos pa dus gcig na 入眞言門主心品第一¹⁸⁾ 禮敬世尊眞言主. 如是我聞. 一時.

※ bcom ldan ḥdas de bshin gśegs pa thams cad byin gyis rlob pa/ rdo rje chen po rgya che ba chos kyi dbyiṅs kyi pho braṅ/ rdo rje ḥdsin thams cad ḥdu ba 薄伽梵. ※住如來加持廣大金剛 法界宮一切持金剛者皆悉集會.

de bshin gśegs paḥi mos pas rnam par rol ba mthaḥ daṅ dbus med ciṅ rtse mo mtho ba/ rin po cheḥi rgyal pos śin tu legs par rgyan pa ḥbyuṅ baḥi khaṅ bzaṅs chen po rin po cheḥi rgyal poḥi naṅ na/ byaṅ chub sems dpaḥi lus kyi seṅ geḥi khri la bdugs te/ 如來信解遊戲神變生大樓閣寶王. 高無中邊諸大妙寶王. 種種間飾菩薩之身位獅子座

----- 中略 -----

※ gsaṅ ba paḥi bdag po phyag na rdo rje daṅ/ ※ 金剛手秘密主. 如是上首

¹⁹⁾de dag la soggs te saṅs rgyas kyi shiṅ bcuḥi rdul phra rab kyi rdul sñed kyi rdo rje ḥdsin rnam daṅ thabs gcig tu bshugs so/ byaṅ chub sems dpaḥi chen po kun tu bzaṅ po daṅ/ byams pa daṅ/ ḥjam dpal daṅ/ sgribs thams cad rnam par sel ba la soggs pa dag gis kyaṅ bskor ciṅ mdun gyis bltas pa la/ 十佛刹微塵數等持金剛衆俱. 及普賢菩薩. 慈氏菩薩.

17) BKAḤ ḤGYUR Rgyud Tha 115b3

18) 大正.18, P.1, 上5

19) BKAḤ ḤGYUR Rgyud Tha 116a1→

妙吉祥菩薩. 除一切蓋障菩薩等諸大菩薩. 前後圍繞內演說法.

ḥdi lta ste de bshin gśegs paḥi ñi ma dus gsum las ḥdas par byin gyis
brlabs nas 所謂越三時如來之日加持故.

sku daṅ gsuṅ daṅ/ thugs mñam pa ñid gshi shes bya baḥi chos kyī
sgoḥi chos ston do/ de na byaṅ chub sems dpaḥ kun tu bzaṅ po la sogs
pa de dag daṅ/ gsaṅ ba paḥi bdag po la sogs pa rde rje ḥdsin de/ 身語
意平等句法門. 時彼菩薩普賢爲上首. 諸執金剛秘密主爲上首

bcom ldan ḥdas rnam par snaṅ mdsad kyī byin gyis brlabs kyis sku
mñam pa ñid bkod pa mi zad paḥi mdsod rnam par bsgyaṅs pa la shugs
so/ de bshin sku daṅ gsuṅ daṅ/ thugs mñam pa ñid bkod pa mi zad paḥi
mdsod rnam par bsgyiṅs pa la shugs te/ 毘盧遮那如來加持故. 奮迅示現身
無盡莊嚴藏. 如是奮迅示現語意平等無盡莊嚴.

티베트 대장경의 번역에서 산스크리트본이 존재하지 않고, 한역에
동일한 경전이 있을 경우, 그 한역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문의 내용에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정
확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티베트역에서 “gsaṅ ba
paḥi bdag po phyag na rdo rje daṅ/ de dag la sogs te ~” 라는
경구가 있을 때, 이것은 金剛手秘密主가眷屬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
는지 확실치 않다. 그런데 한역에서는 “金剛手秘密主. 如是上首” 라
고 하여 분명히 上首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경문에서 존격의 위치를 밝혀 주는 중요한 경구이다.

다음으로 이역본간의 대조는 번역의 차원을 넘어서 교리적인 측면
에서 경문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티베트역에서 “bcom ldan ḥdas de bshin gśegs pa thams cad byin gyis
rlob pa”라는 경구가 있는데 한역에서는 “薄伽梵. 住如來加持”라고 번역 되
어 있다. 여기서 티베트역에 나타난 “thams cad”라는 용어가 한역에서는 발
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相異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먼저 번역연대에서 티베트역과 한역에 차이가 10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용어구사에서 상이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밀교경전에서 “thams cad”라는 용어의 유무에 따라서 포괄적 통일개념의 “bcom ldan ḥdas de bshin gśegs pa”나 개별개념의 “如來”나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밀교경전의 성립사적으로 보면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순차적으로 후기에 속한다. 이와 같이 경전의 번역은 단순히 티베트경전이라고 하는 어떤 한 언어로 된 것만 번역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내용적인 측면까지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려면 이역본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4. 板本校訂 · 異譯本對照 · 譯註本の 完成

여기서는 완전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 한문본이 현존하는 Kamalaśīla의 저작을 예로 들어 異板本 對照校訂과 異譯本 對照을 거친 다음, 譯註本이 完成된 형태를 나타냈다.

śes bya baḥi sgrib pa spaṅs na gags med paḥi phyir ñi maḥi ḥod sprin daṅ ḥbral baḥi nam mkhaḥ la thams cad du thogs pa²⁰⁾ med par snaṅ ba bshin du ye śes kyi snaṅ ba²¹⁾ ḥbyuṅ ṅo/ ḥdi ltar rnam par śes pa ni dṅos paḥi ṅo bo ñid rtogs pa yin na/²²⁾ de yaṅ dṅos po ñe bar gnas su shin kyaṅ gags yod pas gsal bar mi ḥgyur ro/ gags med par gyur na ni mthuḥi khyad par bsam gyis mi khyab pa thob pas ciḥi phyir dṅos po mthaḥ dag ji lta ba

20) thogs pa; NT. thogs

21) śes kyi snaṅ ba; “yogipratyakṣo jñānālokaḥ (修行者の 現證智光)”(GTS. p.216, 11~12), 而彼智光清淨照明(TJS. 32, p.568c28~29).

22) rnam par śes pa ni dṅos paḥi ṅo bo ñid rtogs pa yin na; “vastusvabhāva prakāsarūpaṃ vijñānam, (識은 事物의 自性を 顯示하는 것을 本質로 한다)”(GTS. p.216, 12~13) “若色若心一切自性亦復如是. 諸物實性決定常住, (色心一切의 自性도 이와 같다. 諸物의 實性は 결정코 상주한다)”(GTS. p.568c29~569a1).

bshin du gsal bar mi hgyur/

[만약] 所知障을 끊었다면 장애는 없기 때문에 [예를들면] 日光이 구름이 없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장애없이 조명하듯이 지혜의 照明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識이 事象의 자성을 了解하고, 또한 [예를 들어] 事象[의 眞相]에 접근한다고 해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상의 正態를] 해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장애가 없어졌을 때 불가사의한 [힘]을 증득한 자[와 똑 같아 질 것이다. 그런데 證得者]는 왜 모든 사상을 如實히 해명하지 못하는 것일까?

de bas na kun rdsob²³⁾ daṅ daṅ dam paḥi tshul gyis dṅos po mthaḥ dag ji lta ba bshin du śes pas thams cad mkhyen pa ṅid thob bo/ deḥi phyir ḥdi ṅid sgrib pa sponḥ ba daṅ/ thams cad mkhyen pa ṅid thob par hgyur baḥi lam mchog yin no/²⁴⁾ ṅan thos la sogs paḥi lam gaṅ yin pa des ni phyin ci log thams cad sponḥ bar mi hgyur baḥi phyir sgrib pa gñis legs par mi sponḥ so/²⁵⁾

그러므로 世俗과 勝義의 理趣에 의해서 모든 事象을 여실히 아는 것이 일체 智性を 증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장애를 끊고 일체 智性を 증득하게 되는 最勝道이다. [그런데] 聲聞[道]등은 그것에 의해서 모든 전도를 끊는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煩惱와 所知의] 두 가지 障을 잘 끊지 못한다.

de skad ḥphags pa laṅ kar gśegs pa las kyaṅ bkaḥ stsal te/²⁶⁾

23) kun rdsob; NT. kun rdsob pa

24) lam mchog yin no; NT. lam gyi mchog yin no

25) gñis legs par mi sponḥ so; NT. gñis legs par ma sponḥ so

gshan dag ni chos thams rkyen la rag las par mthon nas mya
 ñan las ḥdas paḥi blor gyur te/ chos la bdag med par mthon ba
 med paḥi phyir blo gros chen po de dag la thar pa med do/ blo
 gros chen po ñan thos kyi theg pa mñon par rtogs paḥi rigs can
 ci ñes par ḥbyuṅ ba ma yin pa la ñes par ḥbyuṅ baḥi blor ḥgyur
 te/ blo gros chen po ḥdi la lta ba ñan pa las bzlog paḥi phyir
 brtson par byaḥo shes ḥbyuṅ ṅo/ de ñid kyi phyir lam gshan thar
 bar ḥgyur ba med pas theg pa gcig kho naḥo shes bcom ldan
 ḥdas kyis bkaḥ stsal to/ ñan thos la sogs paḥi lam bstan pa las
 ni gshug pa la ldem por dgoṅs nas khyeus khyeu dbyuṅ ba bshin
 du bstan par zad do/27)

그것은 『聖入楞伽經』 중에서도 말씀하셨다. “어떤 자는 모든 法이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열반의 覺으로 된다.”28) [그렇지

26) 이 내용은 『聖入楞伽經』 「集一切佛法品」(TJS. 16, p.526c), 異譯 『大乘入楞伽
 經』(TJS. 16, p.597b)의 經文이다. 산스크리트본(南條本, p.63, 16)의 내용도 이와
 거의 일치한다. bkaḥ stsal te; NT. bkaḥ stsal pa

27) 산스크리트본 “kevalam avatāraṅābhisaṃdhinā śrāvakādīmārgo deśitaḥ, (聲聞
 등의 道는 단지 [一乘에] 들어 가기 위한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
 다)”(GTS. p.217, 2)의 經文은 티베트본에서 “ñan thos la sogs paḥi lam bstan pa
 las ni gshug pa la ldem por dgoṅs nas khyeus khyeu dbyuṅ ba bshin du bstan
 par zad do/”로 번역되어 있다. 즉 “khyeus khyeu dbyuṅ ba bshin du, (아동이 아
 동을 끌어 내듯이)”의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

28) gshan dag ni chos thams rkyen la rag las par mthon nas mya ñan las
 ḥdas paḥi blor gyur te; “anye tu kāraṅādhīnān sarvadharmān dṛṣṭvā nirvāṇeapi
 nirvāṇam itibuddhayo bhavanti, (그러므로 다른 자들은 일체법을 인에 의한 것이
 라고 보고, 열반에 있어서도 열반이라고 覺知하는 것이다)”(GTS. p.216, 21~23),
 “彼見法已, 取爲涅槃, 自爲得佛, (그는 법을 보고, 열반이라고 하며, 스스로 불이 되
 었다고 한다)”(TJS. 32, p.569a9). 여기서 티베트본의 “mya ñan las ḥdas paḥi
 blor gyur te”는 산스크리트본에서 “nirvāṇam itibuddhayo bhavanti”, 한역본에서
 “取爲涅槃, 自爲得佛”로 되어 있다. 티베트본과 산스크리트본사이에는 내용상 일치
 하는 바가 있으나 한역의 경우 열반의 경지에 이른 구체적인 佛格을 지칭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만 그것은] 法無我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大慧여! 그들에게 解脫은 없다. 대혜여! 聲聞乘을 現證하는 種姓은 出離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出離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혜여! 이 惡見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수행해야한다”라고 있다. “그러므로 餘他の 道는 해탈[시키는 것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一乘뿐이다”라고 세존은 말씀하셨다.²⁹⁾ 聲聞道를 敎示하고 나서 [一乘에] 趣入시키기 위한 깊은 意圖를 가지고 아동이 아동을 끌어내듯이 [친절히] 敎示 하였던 것이다.

Ⅲ. 티베트 大藏經 翻譯의 諸問題

티베트대장경은 매우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한다는 것은 번역인력의 양성이나 경비의 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장경 전체를 번역의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분야별로 필요한 경전들을 번역해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대장경 전체를 대상으로 삼든 분야별 경전을 대상으로 삼든 우리들은 최대한 번역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번역인력과 비용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은 필요한 판본의 수집과 판본의 계통별 분류작업일 것이다. 그것은 번역에 앞서 판본간 대조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번역의 정확도

29) 산스크리트본에서는 “ata eva cānyena [mārgena] mokṣābhāvād, ekam eva yānam uktam bhagavatā, (실로 그러므로 다른 道에 의해서 해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름이 아닌 一乘을 세존께서 말씀하셨다)”(GTS. p.216, 26~p.217, 1), 한역본에는 “彼所行道非眞解脫, 世尊但說一乘之法, (그 행하는 바 道는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세존께서는 단지 一乘의 法을 설하셨다)”(TJS. 32, p.569a12~13)로 되어 있다.

를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저본을 설정하고, 그 저본을 기반으로 대조본의 범위와 종류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그 뜻을 명쾌히 하기 위한 작업이다.

세 번째로 티베트에서 판각된 판본의 대조가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이역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번역을 진행하여 역주본을 완성하는 것이다.

만약 티베트대장경을 번역할 때 이상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면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다면 똑같은 내용을 복수의 인원이 교차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번역대장경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키워드(Keyword)

덴칼목록, 날탕판, 텔게판, 라사판, 카마라시라, 마니칸bum
IDan dkar catalogue, sNar than scripts, sDe rge scripts, Lha sa
scripts, Kamalaśīla, Maṇi bkaḥ ḥbum